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세이브더칠드런

● 일시 : 2023. 8. 16.(수)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온라인 생중계  YouTube 세이브더칠드런 



목차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인사말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
- 환영사
정태영(세이브더칠드런 총장) 3

Ⅰ 발제문

-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
홍원표(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5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동중학교 교육 사례
공양근(광주광역시 평동중학교 교장) 1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마음건강 돌봄
신선호(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29

Ⅱ 토론문

- 안해정(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57
- 강윤주(한국일보 기자) 63
- 정용주(교육공동체 벗 교사) 69
- 홍찬미(군포중학교 학생) 81
- 방희중(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장학관) 87

인사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리의 삶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듯 하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까지 온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남겨진 상처가 크고 깊어 향후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큼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정서적 상처가 걱정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각종 지표들이 아이들 마음건강 위기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정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학업적, 생활적 측면 모두에서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이나 자해와 같은 극단적 시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학교 일상을 어렵게 할 정도라고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 총체적인 대응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교육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시도자 치료 및 상담 지원과 같은 그 대상이나 내용이 매우 한정적인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위기의 현실을 진단하고 아이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만든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이유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의 자리를 앞장서 만들어주신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홍원표 교수님, 공양근 교장 선생님, 신선호 장학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회, 좌장, 토론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회의원 강민정

환영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안녕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정태영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오늘 간담회를 열어주신 강민정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 좌장을 맡아주신 조운정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학생들은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봉쇄를 겪은 학생들의 삶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아동 삶의 질 수준에 대한 20개국 비교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 18위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교육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상흔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학생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메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마련한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학교와 교육청의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감염의 영향으로 고군분투하였던 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하여 재난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와 학교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가 마련되기까지 어려운 연구를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홍원표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공양근 평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신선호 서울시교육청 장학관님, 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님, 강운주 한국일보 기자님, 정용주 교육공동체 벗 선생님, 군포중학교 홍찬미 학생, 방희중 교육부장학관님께도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정태영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발제문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

홍원표(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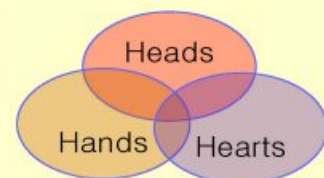
2023. 8. 16

홍원표(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

전통적 이상으로서의 전인교육

- ❖ 플라톤 이래 전인의 양성은 동서양 교육의 오랜 이상
- ❖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중흥의 대공을 세우게 하려 하노니, 너희 신민들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덕과 체와 지를 기를지어다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 조서)



김수천(2006).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육과정학회(편).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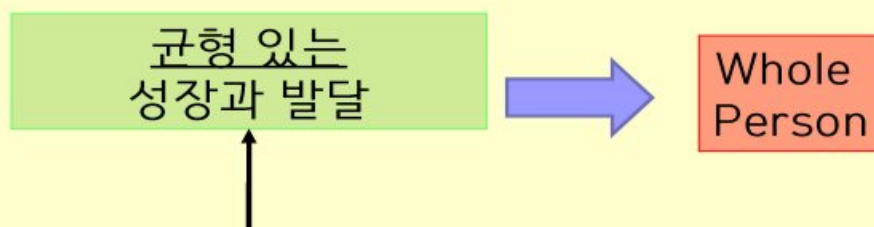
21세기 전인교육의 재개념화 필요성

- ❖ 전통적인 전인교육 사상은 주로 개인의 발전에 초점
- ❖ 지배계급, 귀족 계급 양성에 초점
- ❖ 생태환경의 위기, 코로나 19 사태,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 전인교육을 위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3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 ❖ 전인교육은 교육의 이상이자 목표
- ❖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은 전인교육을 위한 방향이자 전략의 차원



연구 질문: 현 시점에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4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지표 개발 절차



5

성장과 발달지표(4개 대영역, 9개 중영역, 26개 지표)

대영역	중영역	성장과 발달 지표
I. 인지·학습 영역	I-1. 기초학습 역량	[I-1-①] 기초학력(교과 학습에 필요한 최소 학습 역량) [I-1-②] 문해력(언어 이해능력과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I-1-③] 수리력(수학적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 수리적 사고와 기본적인 계산 능력)
	I-2. 자기주도 역량	[I-2-①] 학습방법(자신의 학업적 강·단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태도) [I-2-②] 자기조절(목표의식을 토대로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태도) [I-2-③] 진로·의식(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능력)
	I-3. 창의적 역량	[I-3-①] 개방적 태도(다양한 말상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I-3-②] 호기심(원상의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I-3-③] 창의적 능력(창의·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발상이나 산출을 만드는 능력)
II. 디지털·미디어 영역	II-1. 디지털 역량	[II-1-①] 디지털 기술의 이해(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II-1-②] 디지털 기술의 활용(원상생활과 학습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II-1-③] 디지털 윤리의식(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 디지털 기술의 폐국된 활용 등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II-2. 미디어 역량	[II-2-①] 미디어 이해와 활용(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II-2-②] 정보 해석 역량(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II-2-③] 미디어 윤리의식(개인 정보 보호, 가짜 정보와 사이버 폭력의 위험 등 미디어 윤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III. 정서·사회 영역	III-1. 정서적 역량	[III-1-①] 정서인식과 표현(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1-②] 정서적 공감(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 [III-1-③] 심미적 감성(삶과 세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2. 사회적 역량	[III-2-①] 소속감(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III-2-②] 관계형성과 소통(가족, 또래, 교사 등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III-2-③] 협업 및 갈등해결(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태도) [III-2-④] 세계시민의식(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태도)
IV. 건강·안전 영역	IV-1. 건강관리 역량	[IV-1-①] 신체 건강(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태도) [IV-1-②] 정신 건강(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능력)
	IV-2. 안전 역량	[IV-2-①] 안전 의식(각종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IV-2-②] 폭력 예방(언어적·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이해하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려는 태도)

6

교육 영역

- I.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학교 구성원: 학교관리자와 교직원을 의미)
- II. 교육과정(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차원에서 계획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 III. 수업
- IV. 학생평가(학교에서 진행되는 형성 및 총괄평가)
- V. 시설과 인프라
- VI. 지역사회 연계와 행·재정적 지원

7

설문 문항 개발

❖성장과 발달지표와 교육영역을 교차함으로써 모두 79개 설문 문항 개발

Ex.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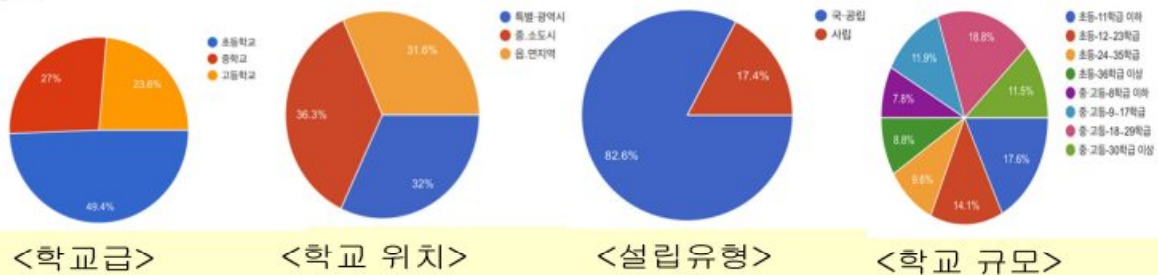
전반적 인식 과 실천		①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②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I. 인지·학습 영역	I-1. 기초학습 역량	③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을 삶과 학습의 주체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2. 자기 주도 역량	④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3. 창의적 역량	
II. 디지털·미디어 영역	II-1. 디지털 역량	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예: 교원학습공동체, 교사 자율연구, 교과협의회 등)
	II-2. 미디어 역량	⑥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디지털·미디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 수업연구, 연구 참여 등)
III. 정서·사회 영역	III-1. 정서적 역량	⑦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정서를 존중하고,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I-2. 사회적 역량	⑧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V. 건강·안전 영역	IV-1. 건강관리 역량	⑨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신체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⑩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 개인 면담, 심리 상담 소개, Wee 센터 활용 등)
	IV-2. 안전 역량	⑪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⑫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이 각종 언어적·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8

설문 실시 및 참여 학교 현황

- ❖ 2023년 6~7월 2회에 걸쳐 온라인 설문 조사
- ❖ 무선표집된 전국의 초·중·고 600개 학교에 설문 요청
- ❖ 학교 전반적인 상황에 익숙한 교무, 연구, 교육과정 부장 중 1인이 응답하도록 안내
- ❖ 최종 512개교 응답, 506개교 분석에 활용

응답 512개



9

성장발달 지표 X 교육 영역

성장발달 지표(대영역)	교육 영역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	학생 평가	시설과 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와 행·재정적 지원	전체
전반적 인식과 실천	4.66						
I. 인지·학업 영역	4.60	4.44	4.39	4.45	4.42	4.33	4.44
II. 디지털·미디어 영역	4.28	4.23	4.36	4.23	4.32	4.29	4.29
III. 정서·사회 영역	4.62	4.43	4.44	4.46	4.43	4.15	4.42
IV. 건강·안전영역	4.72	4.63	4.51	-	4.38	4.30	4.51
전체	4.58	4.43	4.43	4.38	4.39	4.27	

10

교육 영역별 설문결과 분석

1.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

영역	문항	영역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I. 인지·학업 영역	4.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60	.561	4.52	.657
II. 디지털·미디어 영역	5.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예: 교원학습공동체, 교사 자율연수, 교과 협의회 등).	4.28	.823	4.33	.879
	6.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디지털·미디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예: 수업연구, 연수 참여 등).			4.23	.855
III. 정서·사회 영역	8.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62	.535	4.52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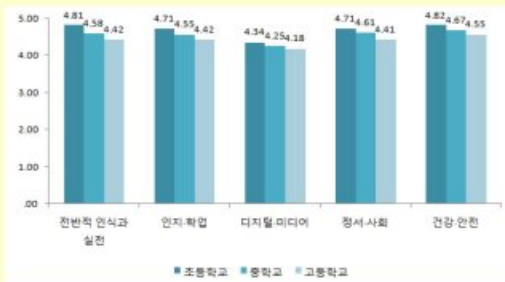
11

2.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함양(4.39), 디지털·미디어 영역(4.23), 세계시민의식 함양(4.31), 정신 건강(4.38) 등에서 낮은 인식을 보임.
3. ‘수업’에서는 자기주도학습(4.21), 도전적 발상(4.29) 항목에서 낮은 인식을 보임.
4. ‘학생 평가’에서는 디지털·미디어와 평가의 연계(4.23)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남
5. ‘시설과 인프라’에서는 창의력 개발(4.21)과 학생들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공간 확보(4.10),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4.05)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남.
6. ‘지역사회 연계와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4.00), 지역 사회 이해와 소속감 개발(4.01),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 (4.01)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남.

12

학교급별 교육지표 현황

❖ 대부분의 영역에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서의 인식을 보임.



<학교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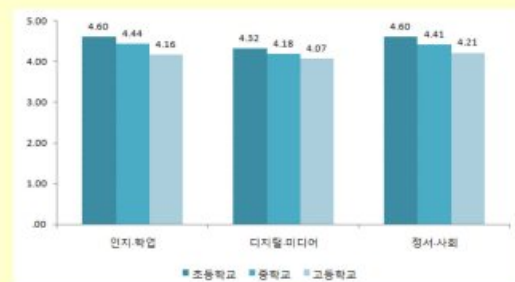


<교육과정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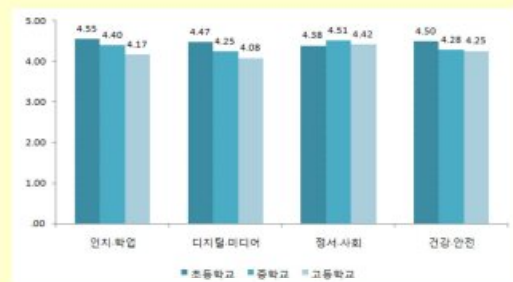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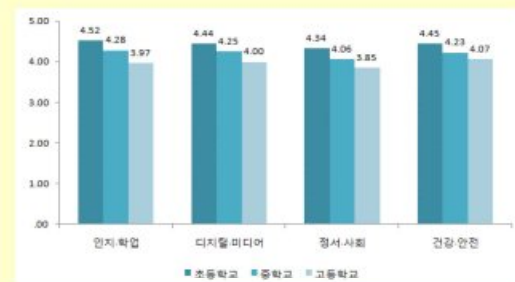
<수업>



<학생평가>



<시설과 인프라>



<지역사회 연계와 행·재정적 지원>

14

논의 및 결론 I

- ❖ 교육 영역별로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교육과정과 수업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이 나타남. 반면 지역사회 연계와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낮은 인식이 나타남.
- ❖ 특히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 구비와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지역적 소속감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지원에 대한 인식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5

논의 및 결론 II

- ❖ 성장과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건강·안전 영역에 대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 ❖ 반면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역량(학습전략, 자기조절) 및 창의·융합적 사고 개발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의 수업이 교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함.
- ❖ 4개의 성장·발달 영역 중에서 디지털·미디어 영역이 학교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향후 디지털·미디어 역량과 윤리의식 개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단 점을 시사함.

16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발제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동중학교 교육 사례

공양근(광주광역시 평동중학교 교장)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동중학교 교육 사례



결 따라 모양대로 자라게 도와주는 교육



1. 교육지표

❖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노마드 인재 육성 ❖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꾸는 것, 한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창조적 행위를 지향하는 사람.

2. 학교 개요

- * 학교유형: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 * 교육과정: 특성화 4단계(교과내/교과간/비교과/무학년 방과후)
- * 교육방침: 예방교육, 동행교육, 창의인성교육, 공동체교육
- * 특색사업: 365상담/전교과 책대화/1교과 1특성화프로젝트
- * 학 생 수: 학년별 2학급(학급별 15명) = 90명
- * 입학전형: 40%(평동초)+60%(광주 전역/학생 직접 추천)

3. 특성화 1단계: 교과 내 특성화수업 프로젝트

국어:소논문 프로젝트



영어:국제교류(Lentiz)



음악:국악오케스트라



기타:로봇,3D,드론,DIY



미술:공공벽화 프로젝트



과학:야생화/텃밭/생태



4. 특성화 2단계: 교과 간 융합(steam)수업

내심시계 만들기

- 수학: 내심/외심 이해
- 미술: 시계 디자인
- 기타: 시계판 목공제작

DIY 작품제작

- 미술: 자연을 담은 의자 디자인
- 기타: 목공작품 제작

야생화 문예창작

- 과학: 식물의 구조
- 국어: 시 창작활동
- 기타: 다육 화분 제작

상징 타이포그래피

- 국어: 문학적 상징과 해석
- 미술: 타이포그래피로 표현

지역사회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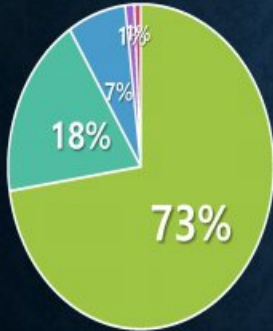
- 역사: 지역 역사와 인물
- 과학: 황룡강 생태환경
- 미술: 생태지도 그리기

팬플릿 만들기

- 음악: 피타고라스 음계
- 과학: 파동의 이해
- 기타: 팬플릿 제작

4. 특성화 2단계: 교육활동 융합(steam)수업

1박2일 국토순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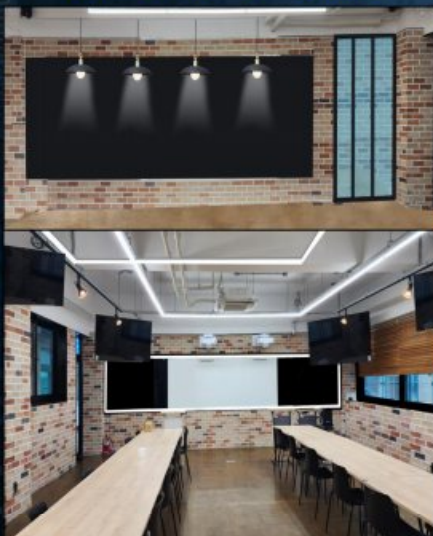


창체활동에 대한 교과별 연계 수업

- 국어: 지리산 문학탐구, 노고단탐방 창작글쓰기
- 도덕: 공동체 문화에 대한 실천 방안 및 안전 토의
- 수학: 수학활용 등산 사례 및 문제 해결 프로그램
- 미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캘리그래피 제작
- 과학: 지리산 노고단에서 서식하는 야생화 탐구
- 체육: 지리산 노고단 등반을 위한 체력 다지기
- 기타: 등산복 섬유의 특성과 관리법, 미래 등산복
- 사회: 지리산 지역 역사와 역사적 인물 탐구
- 음악: 자연의 소리가 담긴 영상과 힐링 음악 탐구
- 영어: 지리산 탐방 과정/결과 영어 프리젠테이션

4. 특성화 2단계: 교육사업 융합(steam)수업

AI교실 구축 디자인



AI활용 교과활동

- 국어: AI활용 소논문 프로젝트 및 창작 글쓰기 수업 진행
- 기타: 통신기술의 문제 해결 - 전자와 자기, 인공지능 사회 변화의 과거, 현재, 미래 비교
- 미술: AI 활용 공간예술 작품 제작하기
- 영어: All your dreams are worth chasiry를 AI로 분석하기
- 체육: AI진단을 통한 올바른 운동계획 세우기

5. 특성화 3단계: 비교과 특성화 프로그램

다섯손가락



극기체험/국토순례



도담도담 텃밭제



인성/진로비전 스쿨



여행프로젝트



상담프로젝트



5. 특성화 3단계: 비교과 특성화 프로그램

스포츠 화목 리그



자전거 생태탐사



해양 수련활동



외부창체/월1회



꿈끼 탐색활동



열린 토론회



6. 특성화 4단계: 무학년제 방과후활동

기술창조



칼림바



ESS과학



가야금



플룻



드론



6. 특성화 4단계: 무학년제 방과후활동

원어민회화



통기타



밴드



뉴스포츠



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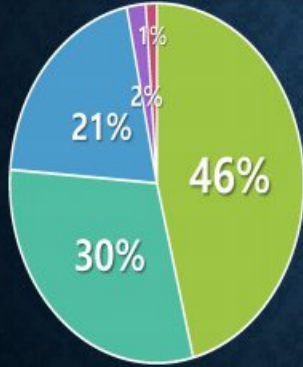


창의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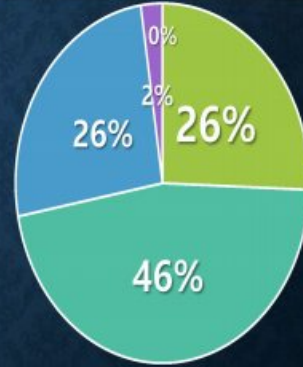
7. 2023년 1학기 교육활동평가 설문 결과

학생 90명 중 85명 참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학부모 90명 중 33명 참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설문내용: 교육과정+교육자치+교수학습지도+창체활동+생활교육+진로교육+방과후+안전... 통합

✿ 수상실적: 인성교육대상, 교육과정/방과후/자유학기제 표창, 환경교육대상, 아름다운학교상,

8. 평동중 리모델링 계획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동중학교 교육 사례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발제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마음건강 돌봄

신선호(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마음건강 돌봄

-서울시교육청 상담마음건강팀 신선호-

[프롤로그]

**바이러스가 아이들 몸을 어른들
몸만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파괴할 수는 있다. - 드팔 -**

[현황]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이 위험하다

- ▷ 4.16(일) SNS 자살 라이브 방송중 투신
- ▷ 4.17(월) 흉기로 동급생 상해 후 투신
- ※ 4.20(목) 그룹 아스트로 문빈 자살
- ▷ 4.20(목) 중학생 투신
- ▷ 4.22(토) 고등학생 투신
- ▷ 4.24(월) 고등학생 목매



2023년 1분기(1~3월) 전국 자살학생 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명	34명	27명	24명	35명	29명	46명

(교육부)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자살위험군 증가 추이

구분	학교수	검사결과	
		관심군	자살위험
2020	1,318	12,382(4.41%)	3,075(1.10%)
2021	1,320	12,117(4.5%)	3,310(1.2%)
2022	1,318	13,489(5.09%)	3,749(1.42%)

(서울특별시교육청)

[논점1]

**코로나,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나?**

Durkheim

이기적 자살

VS

이타적 자살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 약화**

코로나의 상흔 : 대인관계 어려움

37.0%의 학생이
가족문제(부모자녀 갈등, 부모 갈등 등)

21.7%의 학생은
친구문제(교우 갈등, 이성 문제 등)

(교육부)

학생 자살의 저연령화

초 5·6학년 (0명→5명)

중 1·2학년 (3명→11명)

자살 학생 **433.0%** 증가

(교육부)



Durkhe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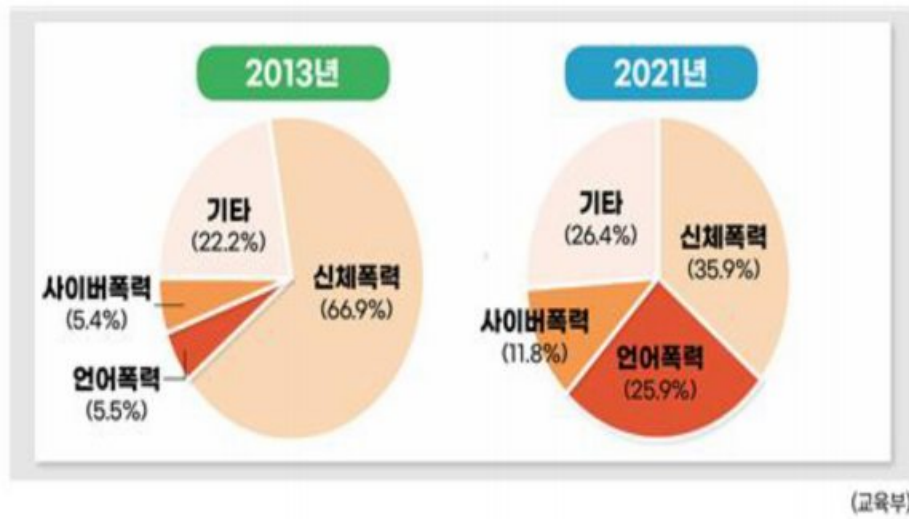
아노미적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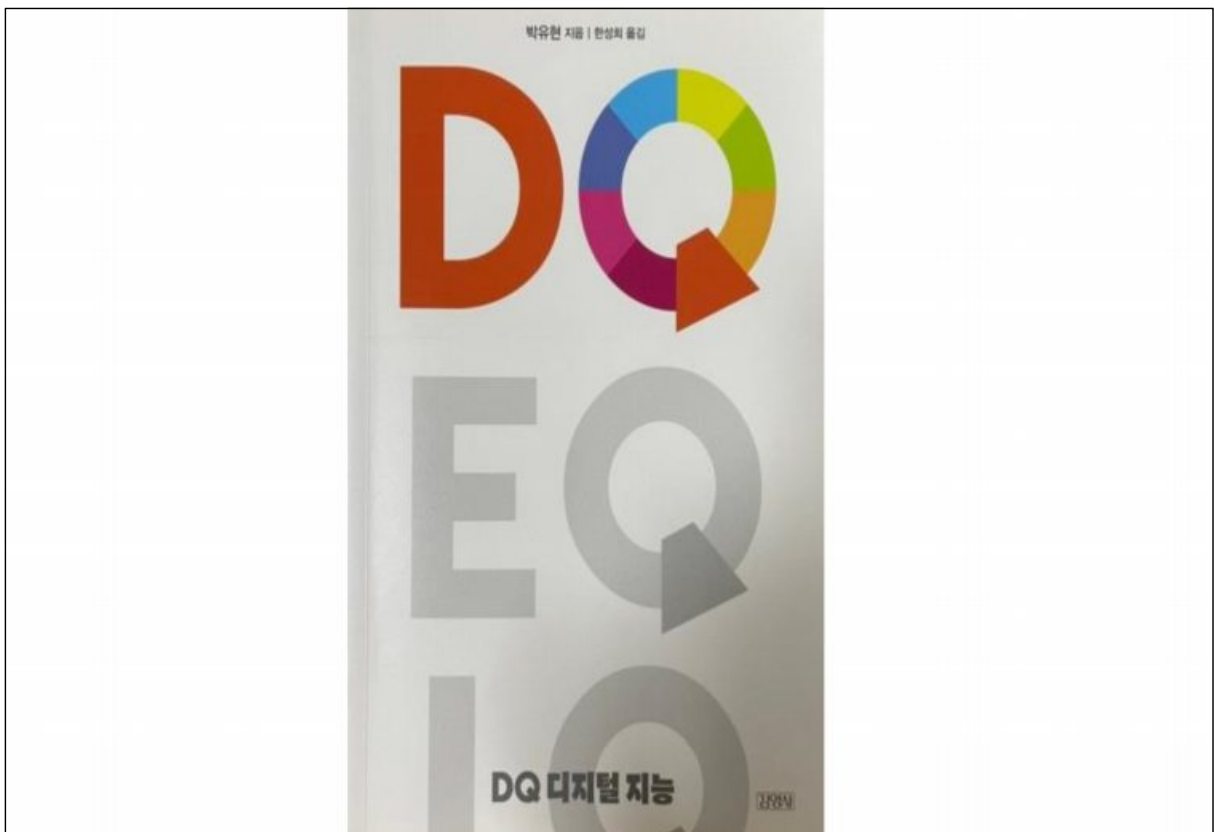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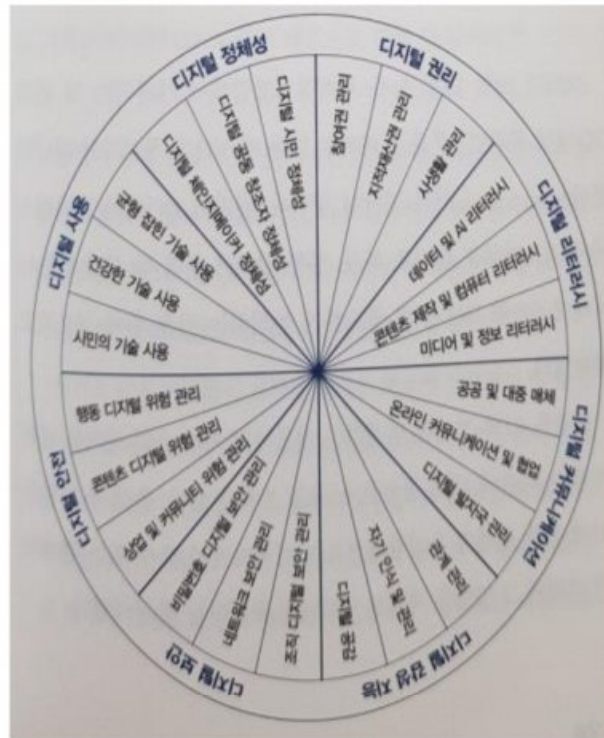
숙명적 자살

호모 사피엔스 ?

호모 사이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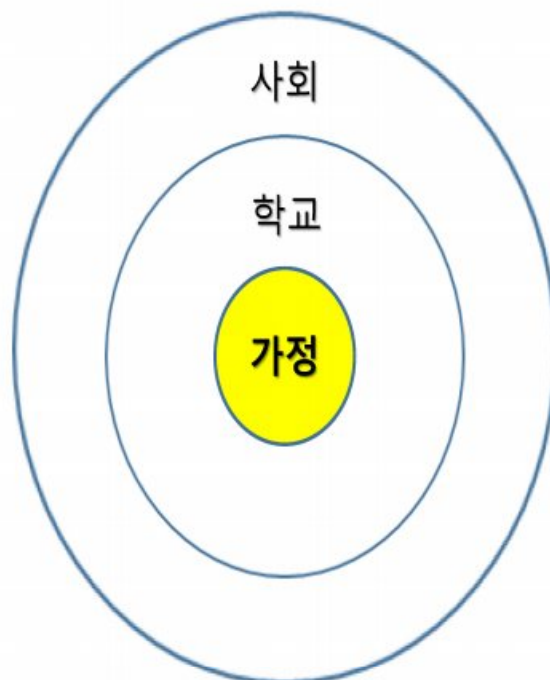




[논점2]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안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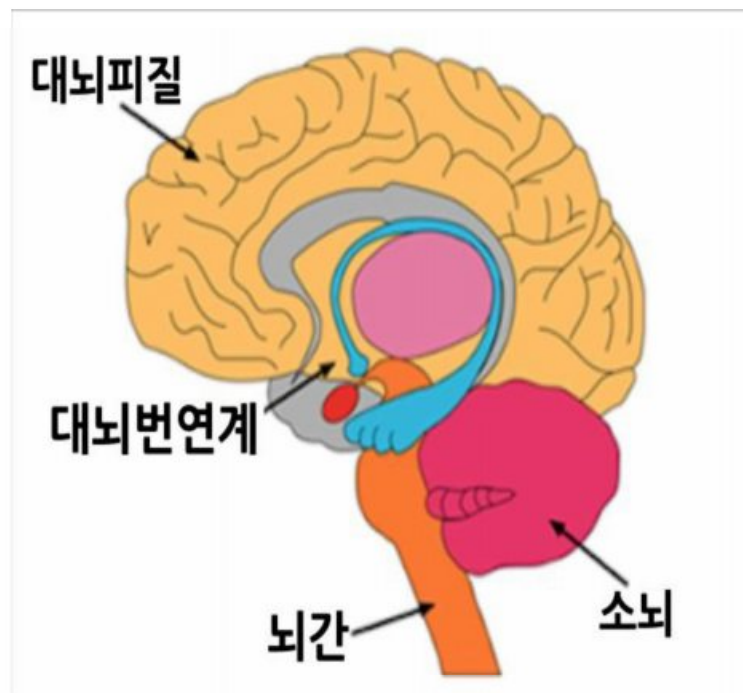


자살의 원인(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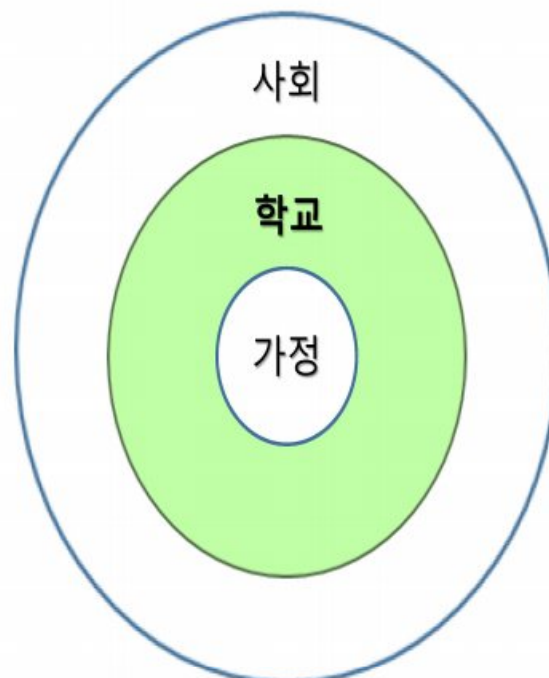
31 **29** **15** **12**
불명 **가정** **우울** **성적**

(서울특별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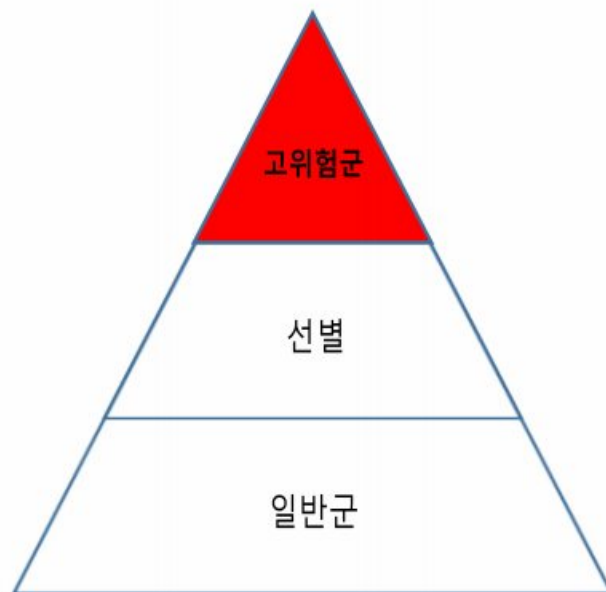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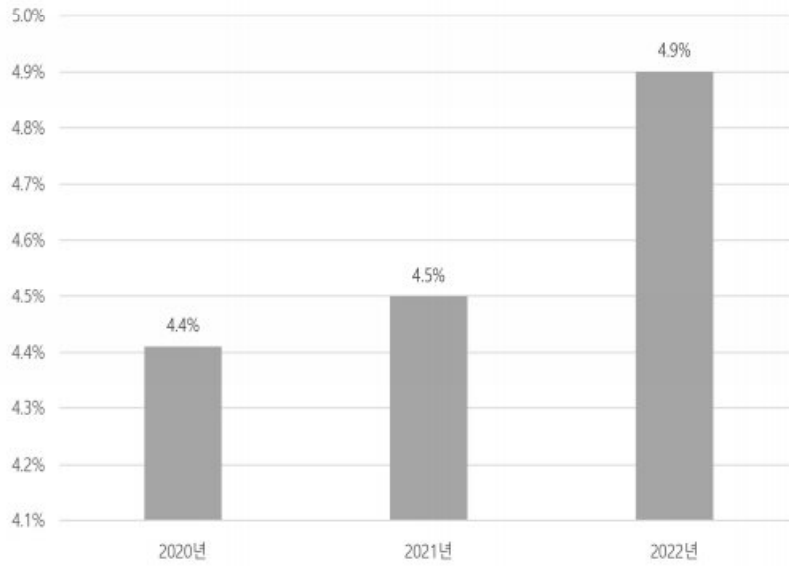




[방안②]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비율 증가



〈Wee프로젝트 상담·치유 연계〉



위(Wee) 센터 운영 현황

소속 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본청	합계
센터 명	동대문 중랑	서대문 마포 은평어 울림	영등포 금천 꿈세움	도봉 노원	중부 종로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관악 밝음이랑	성동광진 마음이랑	강북 성북	서울통합 위드위	26
계	2	3	3	2	2	2	2	2	2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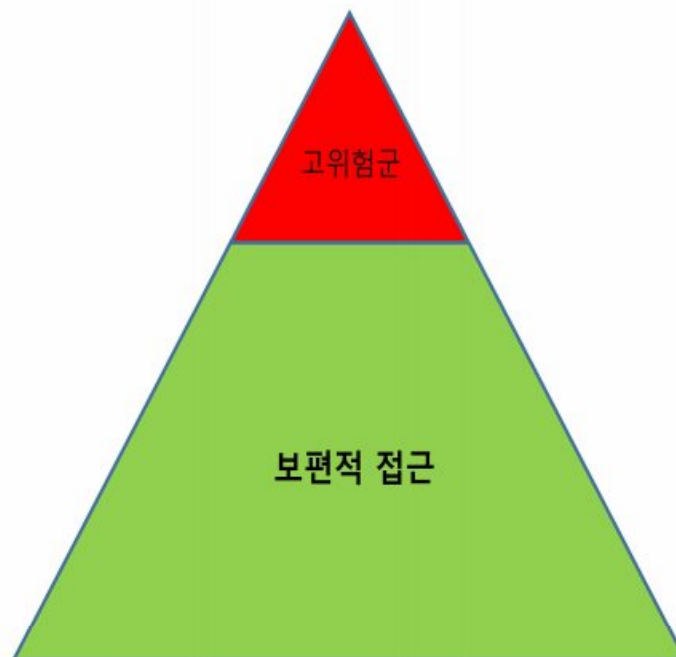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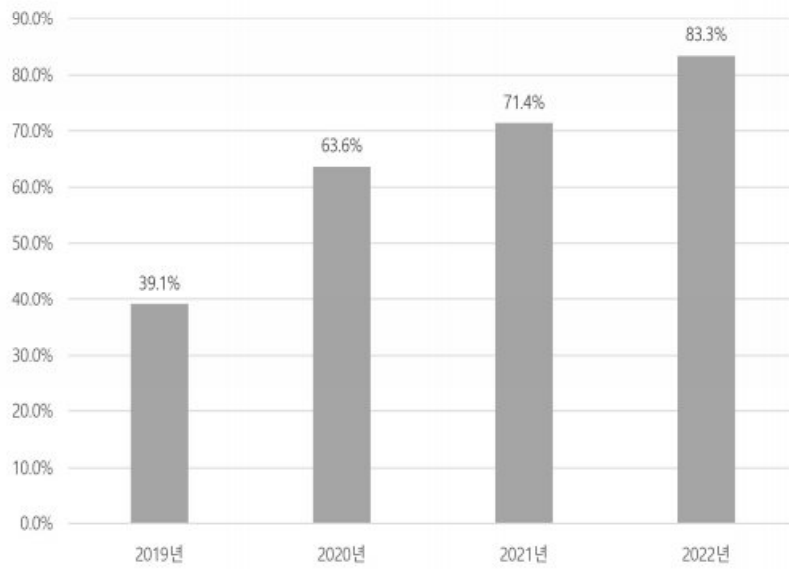
위(Wee) 클래스 구축 및 상담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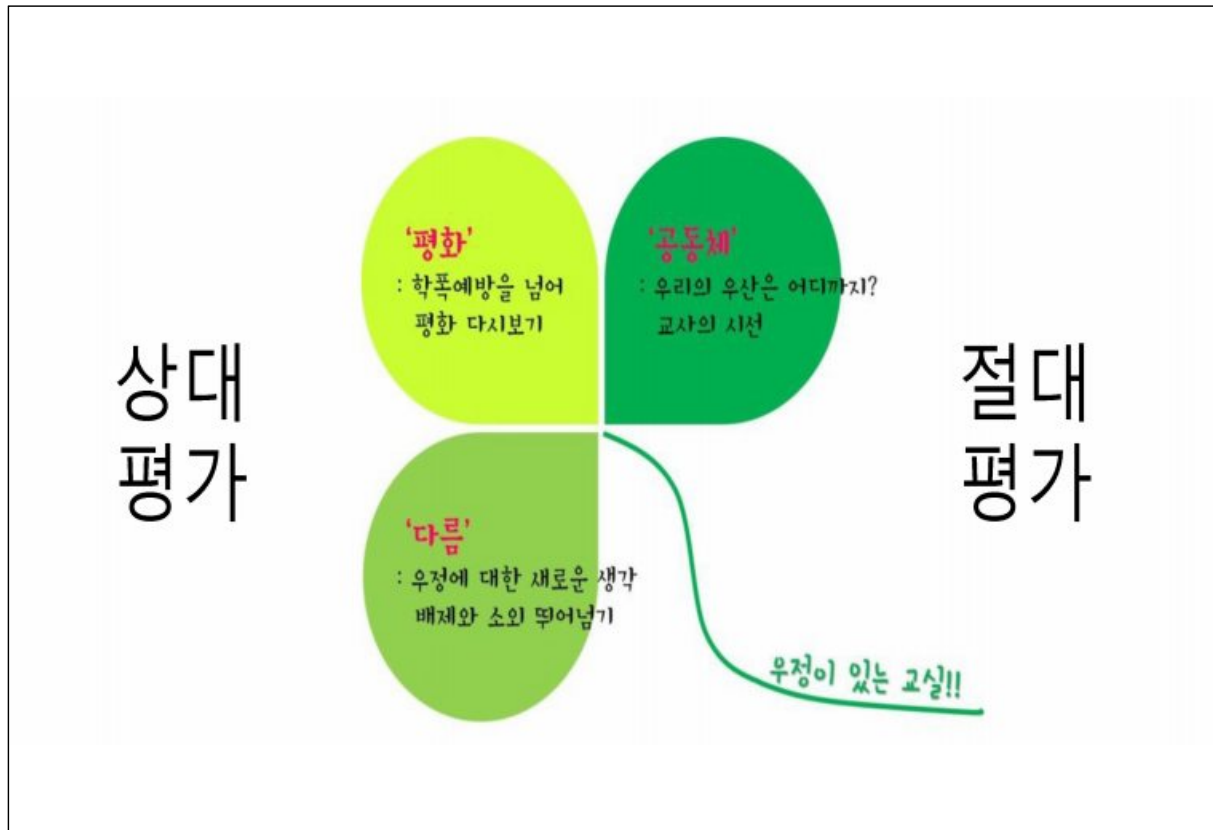
학교급	총학교수	위클래스		전문상담인력			
		구축수	구축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계	배치율
초	606	311	51.3%	193	145	338	55.9%
중	396	383	96.7%	215	164	379	95.7%
고	331	287	86.7%	202	60	262	79.2%
합계	1,333	981	73.6%	610	369	979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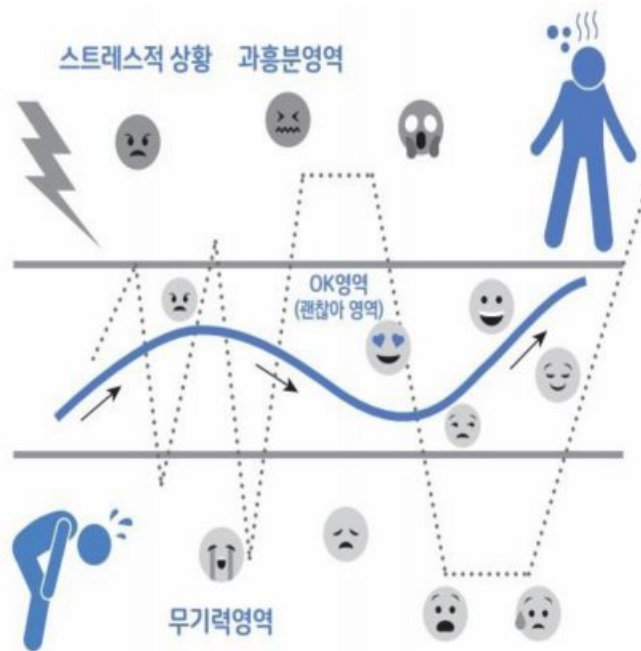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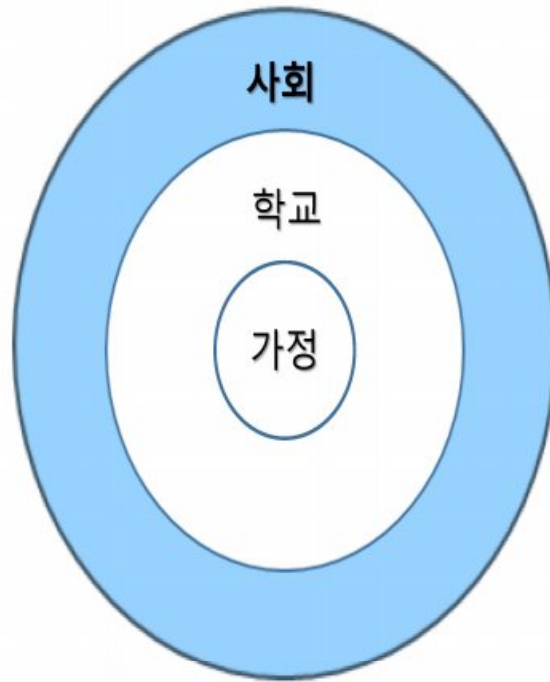
자살 학생 중 정상군 학생 비율







[방안③]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생명사랑 789 인증학교’ 도입을 통한 게이트 키퍼 확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권역명	담당 전문기관명	해당 교육청
1권역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강서양천, 남부, 동작관악(관악구)
2권역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서초, 강동송파, 동작관악(동작구)
3권역	서울순천향병원	서부, 성북강북, 성동광진(광진구), 중부(용산구/중구)
4권역	서울의료원	동부, 성동광진, 북부(노원구), 중부(종로구)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 자살예방 사업



Have fun
together

International summer camps



Contract



Membership card

조장 사회
경쟁 사회
피로 사회

[에필로그]

**코로나 VS
포스트코로나**

핀란드 VS 한국

**한 명의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것이다**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토론문

안해정(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방안¹⁾

안해정(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와 학생의 심리정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고 간 지 4년이 되어간다.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덧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는 특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인지역량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및 심리·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아동행복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걱정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21).

또한, 청소년 온라인 상담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8-2019 1분기)과 이후(2020-2021 1분기)를 비교했을 때 팬데믹 이후 기간 동안 각각 정신건강과 가족 관련 상담은 각각 78.6%와 70.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상담 요구는 전 영역에 걸쳐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등교 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학교상담 및 대면상담의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들이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 이 토론문은 토론자(안해정)가 집필한 「교육개발 2023 여름호」(통권 제 227호, pp. 36-4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을 파악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스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심리·정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심한 학생들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10%에 가까운 학생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이 심리·정서적으로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표 1〉 코로나19 시기 학생 심리정서 문제 증가 여부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과 어려움

영역	문항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직원 비율(%)	교육의 어려움 정도 (평균)
개인 정서문제	1) 불안·걱정이 많은 학생들	83.4	3.56
	2)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95.1	3.76
	3) 충동·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	91.4	4.02
	4) 짜증·불만이 많은 학생들	87.5	3.68
	5)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는 학생들	89.1	3.83
	6)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들	91.0	3.79
자신 이해 및 타인 관계 문제	7) 청결이나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	47.2	3.03
	8) 학교 출결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63.1	3.45
	9)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84.3	3.63
	10)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83.9	3.55
	11) 공동체의식과 배려가 부족한 학생들	88.1	3.59
	12) 규범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	76.3	3.42
	13)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85.3	3.55
	14)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73.3	3.67
	15)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56.2	3.12
	16)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	74.6	3.30
	17)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	75.4	3.25
	18) 심리정서 및 학업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	87.4	3.79

출처: 안해정 외(2022, p. 70-71)

코로나19 시기에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의 증가 여부에 대해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90% 이상)의 선생님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충동·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들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생님들은 학생 개인의 정서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에게 발현되는 문제

가 복합적이거나 학교 밖 원가정과의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에게 개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들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정서가 두드러지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정서 문제는 단편적이기 보다는 서로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심리·정서 문제는 불안, 우울, 무기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및 갈등 해결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양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문제 양상을 지니지 않던 학생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 회복력을 지니고 있어 심리정서적 문제 발현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기존의 학교 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던 학생들은 그 심리정서적 문제의 내용의 폭과 정도가 매우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방안

학생들의 심리정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 학교 내 전문 인력 충원 및 배치, 2) 학교 내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내실화, 3)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 4)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5)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에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문제의 종류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통합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위기에 대한 대처와 회복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통합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때 관리자, 교사 및 학교 내 다양한 교직원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발굴은 일반 교사, 통합 지원은 학교 내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영양사 등)이,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통합 지원 팀을 이끄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통합 지원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연계·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부모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학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 교육의 실효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문제 정도에 따라 치료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학교 혹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 활동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상황이 자주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 활동이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안해정(2023).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와 지원 방안. 교육개발, 227(2023 여름호), 36-42.
<https://www.kedi.re.kr/khome/main/journal/listEDJournalForm.do> (2023.08.12. 인출)
 안해정, 김현진, 이선영, 이성희, 최예슬, 김명섭, 이현주(2022).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 안전망 구축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익중·이수진·정수정·유다영 (2021).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2021, Vol. 02).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105.pdf (2022.02.06. 인출)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토론문

강윤주(한국일보 기자)

아이들은 자란다, 어른들을 지켜보면서

강윤주(한국일보 기자)

“재난과 함께 ‘재난 이후’가 시작된다. 재난을 겪는 중인 동시에 재난 이후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지금, 미뤄도 될 질문은 없다.” -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 최대 피해자 ‘코로나 키즈’에 주목하다

재난 이후를 짚어보는 기획을 풀어갈 ‘화자’, 주인공을 누구로 세울지 고민의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재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고, 그 후유증이 가장 오래 남을 ‘코로나 키즈’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평상시에도 조명되지 않지만, 재난 시기엔 더 외면 받았습니다. 방역이라는 침묵이 강요되는 사이, 학교 문이 닫히고, 비대면 수업으로 채워졌던 지난 2년의 공백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어떤 상흔을 남겼을까. 지난해 전면 등교가 시작됐고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됐으니 다 괜찮아진 걸까. 그간 아이들에게 묻지도 듣지도 않았으니 알 턱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키즈’를 취재한다고 했을 때, 다수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떨어진 성적과 학력을 걱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간의 언론 보도가 왜 학습 결손에만 치우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코로나 얘기냐, 다 괜찮아졌는데 새삼스럽다”고 시큰둥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구나.’ 기획을 시작하며 ①아동의 마음 건강과 사회성에 주목한다 ②아이들의 실제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대원칙을 세운 배경입니다.

‘그림’으로 아이들의 속마음을 짚어보다

본격 취재에 앞서, 코로나 키즈의 취재 범위와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먼저 아동 복지·심리·보육 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꾸리고, 조언에 따라 코로나 3년 동안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측면에서 '필수 발달 시기'를 거쳐야 했던 초등학생들을 주요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입학 때부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2013년생(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집중 살피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교사 77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서울 휘봉초등학교,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세 곳의 협조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복 재미 빨아들이는 ‘코로나 블랙홀’ 세상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방편으로 그림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임상미술치료 권위자 김선현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대한트라우마협회장) 연구팀의 도움이 컸습니다. 처음엔 인터뷰를 낯설어했던 아이들도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건네자, 마음속 가득 찬 응어리들을 풀어냈습니다. 도화지에는 팬데믹 시기 상실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한 아이들의 마음이 다채롭게 들어찼습니다. 행복과 재미를 빨아들이는 '코로나 블랙홀', 텅 빈 학교 운동장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모습, '친구 보고 싶다'며 침대에 누워 눈물 흘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안, 통제, 억압을 상징하는 검은색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분노와 불만, 아픔 등을 의미하는 빨강색도 많이 표현됐습니다. 코로나 3년이 남긴 그늘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걸, 그림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 재난’ 구조 신호 보낸 코로나 키즈들

취재팀은 코로나 시기 공적 교육, 돌봄 시스템의 붕괴로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키즈들의 마음 재난을 보다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스마트폰에 빠져 밤낮이 바뀐 올빼미 생활로 학교에 자주 빠져서 겨우 유급을 면한 은솔이부터, 부모의 경제력, 조부모의 돌봄 하에 코로나 3년을 ‘축적의 시간’으로

보낸 강남키즈 윤재와 집에서 책상 없이 침대 위에 밥상을 올리고 원격 수업을 들으며 고군분투했던 조손가정 지후, 극에 달한 육아스트레스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막내아들 성현이를 학대한 이소영 씨네 가족까지. 형편이 어렵고, 돌봄에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재난은 더 가혹하게 덮쳤습니다.

“아이들은 잘못된 게 없는 데 억울해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재난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2년의 공백만큼 어려진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코로나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얻은 거요? 슬픔과 불행이요”, “행복과 자유, 시간, 단짝 친구를 잃어버렸죠”

아이들은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유년 시절 마땅히 누렸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것에 속상해했고, “우린 잘못된 게 없는데 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원하는 것도 못 해야 하나. 억울하다”는 호통으로 어른들이 망쳐 놓은 세상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책임도, 할 일도 분명히 짚으며 요구했습니다.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 학교 문을 쉽게 닫지 말라고.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으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한 아이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을 때마다 놀라움과 미안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라고 가볍게 넘겨왔던 어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것인지, 새삼 반성하게 됐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 해야” 재난 이후 어른들이 할 일

기획이 나간 이후, 정부와 교육계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3월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를 지력·마음력·신체력 3가지 회복 탄력성 향상에 집중하는 디딤돌 학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신체, 사회성, 심리·정서 등에 결손이 발생한 초등 3·4학년’을 위한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에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아동 정책 추진 방안에 영유아 발달 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

건강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것도 실질적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키즈 마음 재난 회복 지원을 위해 추적관찰 필요성을 강조한 기획의 마무리 제언이 반영된 것 같아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아닐까요. 재난을 통해 드러난 약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간 일은 너무 쉽게 잊으려 드는데,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언제 그랬냐는 듯 벌써 옛날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애써 기억을 지우려는 사이,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들은 미뤄지고, 묻히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재난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빨리 잊자'고 다그치는 어른들, 우리 사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난 이후, 우리에게 아직 던져야 할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아이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토론문

정용주(교육공동체 벗 교사)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용주(교육공동체 벗 교사)

1 |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에 토론의 선결과제, 입시체제 타파

민주공화국에서 공교육의 책무는 모든 사람이 삶의 잠재력을 지능에 상관없이 최대한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 타고난 덕과 재능, 인간 경험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OECD와 유네스코를 포함해 교육선진국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학습자가 자아를 실현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면서 세부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교육, 생태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교육,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맥락을 고려한 교육, 정보기술과 테크놀로지에 기반 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교육이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 아닌 진도 나가고 평가를 통해 변별되고 서열화하면서 누군가는 도태되고, 살아남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입시체제에서 조기선별 시스템이 학원으로 외주화되면서 모든 학습자와 학부모는 이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뒤쳐지는 것의 불안함, 앞서 나가고 싶은 욕망이 교차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막중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결국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 상승과 지위를 결정 짓는 선발의 수단으로서 교육에 매달리는 상태. 고부담 시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러한 막중한 부담과 굳건한

민음은 전체 교육 제도의 변경이나 개선을 더욱 쉽지 않은 일로 만들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과 주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부담과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마다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화 하고, 선택 과목을 신설하거나 출제 범위를 줄이는 등 수능 시스템 자체는 끊임없이 변해 왔다. 초-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시험을 아예 폐지하거나 수행평가 제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며 과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줄여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학생 대다수는 수능이라는 궁극적인 시험이 주는 부담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배움의 참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은 선진화되는데 학생들은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호명되고,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시기 교육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을 전 세계에 증명해 왔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한 시점에서 이제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2¹ 발달 맥락주의와 코로나 19 팬데믹

아동을 포함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아동이 속한 국가 및 사회의 경제적 수준, 정치체제, 복지수준, 교육제도 등 제반환경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 발달에 대해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발달-맥락주의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개인의 삶의 다양한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관점이다(Richardson, 2011). 발달-맥락주의에서 인간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유기체로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발달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다(Lerner, 1991; 1995). 발달-맥락주의 틀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선행되는 조건 즉,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동이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떤 경험을 준비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

이 가능한 교육을 위해 어떤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개념화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발제문의 자료나 토론을 위해 참고한 선행연구나 자료를 토대로 성장과 발달의 영역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장 발달 영역	내용
미래를 준비하는 삶	발달권
	참여권
건강한 삶	생존권
안전한 삶	보호권
함께하는 삶	무차별의 원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성장 발달의 과정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적 건강과 안전, 함께하는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개념화해야 한다.

본 토론에서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central human capabilities를 참고 하였다.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기초들을 간추려 10대 핵심 역량들(central human capabilities)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이라 함은 존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역량'이라 함은 그렇게 할 기회,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자유, 그렇게 된 상태(힘)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것은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은 인권을 통해 실현하려는 인간 존엄의 내용을 잘 보여주며,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비전과 연결된다. 특히 누스바움이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기르도록 해야 할 10가지 역량은 온전한 성장과 발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녀는 생명, 신체적 건강과 통합, 감각, 상상력과 사고, 감정, 이성적 사고, 관계,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에 대한 관심과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역량, 놀이, 환경에 대한 통제 등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역량은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서 공히 핵심적으로 길러야 할 것들이다.

누스바움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10대 핵심역량을 아동권리협약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이 의미있는 범주화할 수 있다.

대영역	중영역	예 시
생존권	건강 및 영양	아동의 건강 상태, 예방접종, 영양 상태 등
	안전	안전 교육, 신체학대 예방,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발달권	물리적 발달	신체 성장 및 발달, 운동 능력 등
	정서·사회적 발달	정서 조절, 대인 관계, 사회적 적응 등
	지적 발달	학습 능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
	문화적 발달	문화적 다양성 인정, 문화 참여 등
보호권	학대와 방임 예방	학대 예방, 적절한 보호 조치, 가정 내 안정 등
	사회적 보호	경제적 지원, 사회적 보장, 적절한 교육/치료 제공 등
참여권	의사결정 참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정보 접근 및 표현의 자유	적절한 정보 제공, 의견 표현의 자유 등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침체해진 ‘자유와 안전’ 문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학습격차, 결손을 넘어 전면적 발달 차원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학교폐쇄의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고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보다 포용적인 한국을 만들기 위해 공교육은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할 것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재난 시기나 비상 상황에서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개인이 속한 가족공동체 차원의 문제해결을 넘어 정치공동체 차원에서 회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대응 영역이 발달 영역에서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영역	중영역	설명 및 예시
재난대응	비상 교육 지원	온라인 학습, 가정 내 교육 지원, 교육 자료 제공 등
	정신 건강 지원	정신 건강 상담, 가족 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안전과 보호	재난 안전 교육, 가정 내 안전 조치, 보호 시설 제공 등
	정보의 투명성 및 접근	재난 관련 정보 제공, 의사소통 채널 확보,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재난 시기에는 일상의 변화와 불안이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학습의 연속성 유지, 정신 건강 지원, 안전 보장 등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아동권리 이행 수준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받아왔다. 이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사회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을 변화시켜왔다. 특히 2015년에는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제1차 아동 정책기본계획안'이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환경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으며,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5).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는 조사대상국 23개국 중 19위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염유식·김경미·이은주·이승원, 2015).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학교폐쇄는 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OECD에서는 K-방역과 함께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터넷 접근성, 학교차원에서 구축된 컴퓨터 용량의 충분성, 인터넷 망 및 속도, 교사의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의 활용 및 기술적/교수적 스킬 보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지나친 게임시간 노출,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됨, 가정 내에서의 방치, 신체적/심리적 건강 악화, 학생의 정신적 건강, 재택학습을 도와주는 학부의 부재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여 공교육제도로서 학교가 부모의 배경에 따라 분리되어, 기본교육 단계가 공교육 제도화 이전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 제도, 정책의 유무 여부에만 가뉘돌 수 없다. 권리 주체인 아동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이 가능해 진다.

3¹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모니터링할 지표의 필요성

아동기는 권리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아동은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민행복'이라는 기초 아래, 2015년에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또한 10년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아동의 행복감을 도달시키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을 정착하려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이로써 가장 행복한 시기로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가정을 포함해 돌봄 공간, 교육 공간 등 발달 환경이 아동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영역을 제시하고 실행기반 조성을 포함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아동권리가 기반이 된 아동정책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노력과 병행하여 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정의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특히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이 한국 아동 삶의 질 지수와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이다. 삶의 질 지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 지연구소와 Save the Children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고, Bradshaw와 Richardson(2009) 행복지수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방정환재단에서 OECD 국가의 아동 행복감을 비교할 목적을 가지고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행복지수는 아동의 행복을 물질적 행복, 주관적 행복, 보건과 안전, 행동과 생활양식, 교육, 가족 과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이후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아동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다차원적인 데이터 수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아동권리학회(1999:2001)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문헌 연구 및 델파이 조사방법 등을 동원하여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지만, 한국의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재난 상황 이전에 재난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이고 신뢰로운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전예방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으로 기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원표 교수팀의 코로나 이후 포괄적이고 타당성 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할 지표를 개발하고 아울러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가용 통계를 시범 적용시켜

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수준 및 통계 생산현황을 예비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향후 세이브더칠드런이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계열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시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6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인프라의 5개 영역, 152개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2009년부터는 통계청의 승인하에 홀수년에 생존권과 보호권을 짝수년에 발달권과 참여권을 조사하였다.

4 | 지표에 대한 의견

지표개발은 관련성, 정확성과 신뢰성, 접근성, 타당성,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개발된다. 우선 관련성은 지표가 아동의 온전한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은 지표가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접근성은 해당 지표가 관련 정보와 데이터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당성은 선택된 지표는 아동의 발달을 적절히 나타내야 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연속성은 지표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장기적인 추세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지표를 보면 지표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경험한 주관적인 권리수준을 직접평가하고 현재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이슈를 담고자 하는 목적이 잘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후 교육의 이슈를 포용적 회복,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반영하면서, OECD의 핵심기초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회복탄력성, 사회정서적 역량, 디지털리터러시와 기초문해력과 수리력이 포괄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기능이 아닌 상호 연결된 역량으로 연결되고 발현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성장과 발달의 지표가 설정된 것이 의미기 있다고 본다.

대영역	중영역	성장발달 지표
I. 인지 학습 영역	I-1. 기초학습 역량	[I-1-①] 기초학력(교과 학습에 필요한 최소 학습 역량) [I-1-②] 문해력(언어 이해능력과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I-1-③] 수리력(수학적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 수리적 사고와 기본적인 계산 능력)
	I-2. 자기주도 역량	[I-2-①] 학습방법(자신의 학업적 장·단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태도) [I-2-②] 자기조절(목표의식을 토대로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태도) [I-2-③] 진로·의식(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능력)
	I-3. 창의적 역량	[I-3-①] 개방적 태도(다양한 발상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I-3-②] 호기심(일상의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I-3-③] 창의적 능력(창의·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발상이나 산물을 만드는 능력)
II. 디지털 미디어 영역	II-1. 디지털 역량	[II-1-①] 디지털 기술의 이해(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II-1-②] 디지털 기술의 활용(일상생활과 학습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II-1-③] 디지털 윤리의식(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 디지털 기술의 왜곡된 활용 등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II-2. 미디어 역량	[II-2-①] 미디어 이해와 활용(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II-2-②] 정보 해석 역량(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II-2-③] 미디어 윤리의식(개인 정보 보호, 가짜 정보와 사이버 폭력의 위험 등 미디어 윤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III. 정서 사회 영역	III-1. 정서적 역량	[III-1-①] 정서인식과 표현(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1-②] 정서적 공감(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 [III-1-③] 심미적 감성(삶과 세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2 사회적 역량	[III-2-①] 소속감(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III-2-②] 관계형성과 소통(가족, 또래, 교사 등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III-2-③] 협업 및 갈등해결(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태도) [III-2-④] 세계시민의식(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태도)
IV. 건강 안전 영역	IV-1. 건강관리 역량	[IV-1-①] 신체 건강(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태도) [IV-1-②] 정신 건강(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능력)
	IV-2. 안전 역량	[IV-2-①] 안전 의식(각종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IV-2-②] 폭력 예방(언어적·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이해하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려는 태도)

5¹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표개발 후속과제

지표는 법과 같이 현장에 대해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표가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통한 현장 실태 조사와 분석, 모니터링 체계 개발,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 제안을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권리와 교육권의 균형 확보

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에서 놀 이슈가 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프레임의 문제이다. 이것은 온전한 성장과 발달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맥락을 갖고 있다. 우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압력은 아동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의 놀이와 여가, 건강 등이 제한되며, 그 결과 생존과 발달권, 참여권 등 협약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사회가 미래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 특정 진로나 전문 분야를 강요하면, 아동의 개인적 희망과 열망을 무시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의사 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온전한 성장과 발달의 원칙과 충돌한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이유로 아동의 현재 삶에서 역량의 발달이 제한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은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엄격한 입시 문화로 미래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며 아동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의 창의력이나 사회성 등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성장과 발달이라는 논리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다. 중국도 이러한 경쟁 문화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다른 영역의 역량 발달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와 학부모의 미래 중심적 관점이 아동의 현재 삶과 다양한 역량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미래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현재의 권리와 복지, 그리고 전반적인 역량 발달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된 지표에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할 체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의해 그 영향력이 결정된다. 우선 개발된 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공론장에서 정기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황과 이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비정부기구, 학계, 부모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의견과 피드백은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체계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다.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위한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아동의 복지 향상과 권리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학년 간, 학교 급 간, 지역 간, 성별 간, 계층 간 성장과 발달의 차별화된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포용적 성장과 발달의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생태적 공존을 위한 지표 추가 필요

인간과 비인간의 생태적 공존을 위해 인간이외의 종에 대한 감수성을 배우는 교육의 영역과 지표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온전한 발달이 지구생태시스템과 공존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영역과 지표구성은 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토론문

홍찬미(군포중학교 학생)

코로나 시국 학생들의 어려움

홍찬미(군포중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중학교 홍찬미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 저와 제 친구가 느꼈던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학습 환경입니다. 당시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업을 들었는데, 화면과 소리가 작아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화면을 보기엔 스마트폰이 너무 작았고 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계가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노트북이 생기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좋았습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 가정 내 독립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여럿인 친구들은 동시에 온라인수업을 들으면서 소리가 겹치거나 동생들이 장난치면서 방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부모님께서 학습환경을 온전히 지원해 주신 경우 수업을 듣기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학습환경이 조성 되어도 어려운 점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면 수업처럼 바로바로 질문을 하기도 어려웠고, 일방적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둠 수업을 하기도 힘들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제가 생겨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따라가고 싶으면 학원을 따로 다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는 온라인수업을 하는 동안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경계가 모호해져서 실제

학교를 갔을 때 규칙적인 시간에 적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 종이 치지 않을뿐더러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져 시간 감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이라 선생님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서 수업 시간에 게임하고 영상을 보고 잠을 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학습 수준에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확실히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는 대면 수업만큼 학습 성취율을 끌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느끼기 어려웠지만, 중학생이 되며 중고등학교 선배들을 만나보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친구들과 성적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무조건 카메라를 켜야해서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하면서 카메라를 켜면 자신의 집과 자신의 공간이 노출되게 됩니다. 얼굴이 나오는 것도 신경쓰이는데 제 사적인 공간이 오픈되는 게 싫었습니다.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도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땐 학교에 등교할 때처럼 생활패턴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옷을 갖춰 입고 준비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게임하고 유튜브, 웹툰 등을 시청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친구들과 연락을 잘하지 않는 친구들은 교우관계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금 약해지면서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과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예전보다 살갑게 지내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과 멀어지니 학교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교우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점이 많아졌고 모르는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사회적자본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질문하지 못한 학생들은 17.5%, 선생님과 대화가 줄어들면

서 공부나 진로에 모르는 게 많아졌다고 답한 학생들이 28.8%였습니다. 저와 제 주변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친구들도 비슷하게 느껴서 많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앞서 말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에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기, 실시간으로 온라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 존재하기, 청소년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하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라에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번 등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준다면 온라인 수업, 자기주도학습 등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문제집 등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취미생활, 진로체험활동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더 찾을 수 있고 성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더 세밀한 도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시간 온라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은 SNS나 특을 많이 하니깐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진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화보다 채팅이 더 편한 친구들이나 직접 만나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온라인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학업 상담 어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분류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기에 자신에게 맞는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노래방, 영화관, 도서관 등 여가시설이 폐쇄하면서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등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공부할 공간과 진로와 관련해 요리, 체육 등에 예체능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는 자유로운 장소가 학교 근처에 있으면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사회적

으로 밀집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문했던 ‘밥 먹고 놀자’ 같은 시설이 더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방문하는 공적인 장소에 대해 제재를 최소화하고 수칙은 지키되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다방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

토론문

방희중(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장학관)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회복 종합방안 추진 내용 및 성과

방희중(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장학관)

- ◆ **(지원 규모)** 약 2년간('21. 하~'22) **9,143억원**(지방비 제외)이 투입되었으며, 초·중·고 학생(누적) **1,240만명** 지원(학습 보충 553만명,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687만명)
- ◆ **(만족도)** 교과보충,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신체건강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교사 82% 이상, 학생 67% 이상),
 - 주된 이유는 교사는 **'학생의 필요 및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 운영'**,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직접 지도'**로 응답
- ◆ **(학업성취 수준)** 코로나19 영향 시기('20)는 정상 교육활동 시기('18~'19)보다 **국어·영어**교과에서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 감소, 수학은 양극화 현상(A·E 증가) 심화
 - **교육회복 정책 투입('21) 이후**, 중·고교 모두 **B·C·D등급 증가, E등급 감소** 효과 확인

I |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교육결손 및 교육격차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 교육회복**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관련 연구(McKinsey, 2020)
 -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12개월 기준으로 평균 3~4개월(낮은 수준의 원격수업은 7개월 이상)의 학습 공백 발생 추정
 - 모든 계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 취약계층은 더 많이 저하되었음을 확인

□ 추진경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제안('21.5.26.)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21.7.29.) 및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추진('21.8.~)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중·장기 교육결손 해소 지원 방안 발표('22.10.11.)

Ⅱ | 주요 추진 내용

① (교육회복 총괄) '21년 하반기에 수립한 「교육회복 종합방안(7.29.)」을 토대로 '22년 3개 영역*(17개 부서담당) 총괄 및 성과관리 추진

* ① 학습, 심리·정서 등의 교육결손 회복, ②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③ 교원 지원, 미래학교 조성 등 교육여건 개선

※ ('21.하) 3개 영역, 52개 과제(26개 부서) → ('22) 3개 영역, 44개 과제(17개 부서)

※ **2년간('21 ~ '22) 총 9,143억원** : ('21.하) 2,514억원(국고 81억, 특교 2,433억) + ('22) 6,629억원(국고 1,097억, 특교 5,532억)

- 현장 소통을 위한 위원회(중앙) 및 지원단(시도)을 운영하고,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전담인력 57명 신규 확보(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② (학습보충) 희망 학생 대상 교(강)사와 교·사대생 등 대학생들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학습보충 지원

※ 학습결손 해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학생 93.6%, 교사 88.2%), '22년도 지속 참여를 희망(학생 92.6%, 교사 90.7%)

- **교과보충** 교(강)사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방학 중 소규모(1~5명) 학습보충 지원 (희망교과 독서 연계 문해력 지도, AI 활용 등)

※ ('21.하) 1,940억원(특교 1,702억+지방비 238억) / 교(강)사 21만명이 학생 142만명 지원 → ('22.) 4,010억원(특교 3,378억+지방비 632억) / 교(강)사 36만명이 학생 392만명 지원

- **튜터링**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소규모(1~4명) 학습보충·상담(교우관계·진로 등)을 대면·비대면(메타버스, 영상 등)으로 지원('22)

※ ('22) 국고 542억원(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튜터 8.6만명이 학생 19만명 지원

③ (심리·정서 등) 학교 여건·수요에 따른 '학교별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자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에 의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

-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 활동, 학교 생활 적응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집중 지원

※ ('21. 하) 619억원(특교 437억+지방비 182억) 학생 250만명 지원 → ('22) 848억원(특교 479억+지방비 369억) 학생 437만명 지원

- 정신과 전문의가 고위기 학생 학교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 맞춤형 치유 및 전문병원 연계 지원

※ ('22)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특교 85억원 / 온라인 위(Wee)닥터 특교 5억원

④ (교육여건 개선) 직무소진 교사의 회복 및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온라인 수업 디지털 인프라 확충(일반교실 무선망 40.5만실, 스마트기기 151만대)

※ ('22) 교원치유지원센터 특교 20억원 /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특교 36억원

III | 정책 성과분석 개요

□ 설문조사

- (조사시기) '22. 6. 13.~ 6. 24.(2주)
- (대상/규모) 학생, 학부모, 교원, 15,057명(771교)
- (내용) 교과보충 등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지적(학습), 정의적(심리·정서·사회성), 신체적(신체 건강) 영역 향상도, 중장기 요구사항 등

□ 단위학교 성취평가제를 활용한 성취도 변화 분석

- (대상/규모) 중2, 중3, 고1 전수, 전체 약 120만 명
- (내용)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18~'21년 매 2학기 국어·수학·영어 성취도 등급(A~E) 비율 비교
- ※ ('18~'19) 정상적 교육활동, ('20.2학기) 코로나 영향, ('21.2학기) 교육회복 투입

IV¹ 주요 결과

□ [설문] 교과보충 프로그램

○ (교사 만족도) 학생 도움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87.9%,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82.3%

- 주요 이유는 '학생의 필요 및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 운영'(64.6%)

【교과보충 프로그램 긍정 응답 이유(교사 3,183명)】

문 항	비율(%)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67.3
참여자 수가 적절하였다.	17.6
선생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12.5
수업방법 및 시간/장소 등이 적절하였다.	2.1

※ 기타응답 제외(이하 동일)

○ (학생 만족도) 긍정 응답 비율은 74.4%,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61.8%

- 주요 이유는 '교사의 직접 지도'(31.0%)가 가장 높음

【교과보충 프로그램 긍정 응답 이유(학생 13,326명)】

문 항	비율(%)
학교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 주셔서 좋았다.	31.1
선생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21.8
나의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21.0
참여자 수가 적절하였다.	12.6
수업 방법 및 시간/장소 등이 적절하였다.	12.5

○ (효과성)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비교한 교과별 성적 향상도 및 흥미도 변화 학생 설문 결과, 대체적으로 '향상' 응답이 높음

【교과별 성적 향상도 및 흥미도 '향상' 응답 비율(%)】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성적	54.8	59.7	57.8	56.2	52.7
흥미	61.3	64.1	59.0	67.2	59.1

□ [설문]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 (교사 만족도) 학생 도움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90.1%,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89.2%

- 주요 이유는 '학생의 필요 및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 운영'(38.5%)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긍정 응답 이유(교사 916명)】

문 항	비율(%)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38.5
선생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26.9
수업방법 및 시간/장소 등이 적절하였다.	18.7
참여자 수가 적절하였다.	15.7

○ (학생 만족도) 도움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67.2%, 만족도 및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각각 69.4%, 61.8%

- 주요 이유는 '나를 이해해주는 교사의 직접 지도'(37.9%)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긍정 응답 이유(학생 1,746명)】

문 항	비율(%)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주셔서 좋았다.	37.9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미있었다.	24.9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다.	22.5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및 시간/장소 등이 적절하였다.	14.4

□ [설문] 신체건강 회복 프로그램

○ (교사 만족도) 학생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82.0%,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81.0%

- 주요 이유는 '학생의 필요 및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 운영'(46.5%)

【신체건강 회복 프로그램 긍정 응답 이유(교사 645명)】

문 항	비율(%)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46.5
수업방법 및 시간/장소 등이 적절하였다.	28.7
선생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16.4
참여자 수가 적절하였다.	8.1

- (학생 만족도) 도움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74.1%, 만족도 및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각각 77.1%, 72.1%

- 주요 이유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미있었다.'(38.3%)

【신체건강 회복 프로그램 긍정 응답 이유(학생 1,830명)】

문 항	비율(%)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미있었다.	38.3
선생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23.4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및 시간/장소 등이 적절하였다.	19.8
참여자 수가 적절하였다.	18.0

【참고】 교육회복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학부모(2,144명) 설문 결과

- 학생 도움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47.9%, 만족도 및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각각 78.3%, 81.1%
- 학생 도움 여부 긍정 인식 비율, 만족도 및 향후 지속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모두 초>중>고 순으로 높음

□ [설문] 정책 개선 의견 수렴(교사 3,704명, 학부모 2,544명 대상)

- (계속 지원) 전체 응답자의 87.3%가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학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주요 이유는 '교육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교육결손이 해소되지 못한 학생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50.7%)

- (지원 기간) 학교 지원 지속 필요 기간에 대해 2년(31.2%) > 3년(20.4%) > 5년이상(19.7%) > 1년이하(15.0%) > 지원 불필요(5.6%) 순으로 응답

- 지원 불필요 응답자의 주요 이유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방과후 등)이 이미 많다.'(51.8%)

- (지원 우선 순위) 기초학력 미달 학생 > 중상위권 포함 희망자 > 저소득층(성적 무관) > 상위권 제외 중하위권 학생 순으로 응답

※ 응답자별 3순위 선택,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붙임 |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해외 동향

□ 미국

- ‘초·중등학교 비상회복기금’(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mergency Relief Fund, ESSER)을 3차에 걸쳐 마련(‘20~’22년, 총 236.7조원)
-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 학습기구 및 서비스 구매, 장기간 학교 폐쇄로 영향을 겪은 학생 대상 급식 제공, 학교 방역 위생도구 구매 등에 사용

□ 영국

- 초·중등학교에 교육회복 지원금을 3차에 걸쳐 마련(‘20~’21년, 총 2.7조원)
 - ※ (‘20) Catch-up Premium-Coronavirus, (‘21) Recovery Premium Funding
- 초·중등학교 저소득층의 학생을 지원, 교수학습 향상, 튜터링, 사회적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집행할 것을 권고

□ 독일

- COVID-19 이후 회복 및 따라잡기 프로그램(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 für Kinder and Jugendliche”) 지원금을 2차에 걸쳐 주정부에 지원(‘21~’22년, 총 2.6조원)
- 교과 보충학습 지원, 유아 언어교육, 부모교육(영양), 교외 사회·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저소득 가정 가족휴양지 제공,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를 통한 학생 일상·학교생활 동행 지원 등

□ 포르투갈

- ‘학교+ 21|23 계획’(Plano 21|23 Escola+) 계획을 수립하여 COVID-19로 발생한 학생들의 불평등 해소 지원(‘21~’23년, 총 1.2조원)
 - ※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업
-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사회·정서적 웰빙, 모든 교육사회의 참여, 전문역량 강화, 사업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 지원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